###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4일~30일 열려

# 의무센터 이틀 전부터 가동

## 무주군 보건의료원, 무주덕유산리조트 민들레동에서 24시간 운영

무주군 보건의료원은 2017년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공식지정병원으로(이외 전북대학병원, 대자인병원, 건양대학병원) 대회 이틀 전부터(22.~30.)는 무주덕유산리조트 민들레동에서 선수촌 의무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24시간 운영되는 선수촌 의무센터에서는 보건진료소장(09:00~다음 날 09:00)과 간호사 등 27명의 의료 인력이 2교대(09:00~18:00 / 18:00~다음 날 09:00)로 상주하며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선수들에 대한 악화방지와 회복촉진을 위한 응급처치를 하게 된다.

선수촌 의무센터에는 해열·진통 등의 상비약과 소모품 등 37종과 전자혈압계 등 6종의 의료장비를 갖출 예정이다.

군은 의무센터 상주 인력들이 응급상황에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북응급의료센터와 협력해 심폐소생술 및 앰뷸런스 내 의료장비 사용법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이해심 보건행정 담당은 "대회 참가선수는 물론, 대회 관계자와 관람객 등 누구나 필요할 때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긴급환자가 발생해 보건의료원 응급실로 후송하게 될 때에도 응급실 담당 의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 공식지정 병원이 된 무주군 보건의료원은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34명의 의료 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정형외과를 비롯한 내과와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치과 등 6개 과가 마련돼 있다.

병상은 4인실과 2인실 등 24개로 24시간 응급실(의사 4, 간호사 8, 방사선사 3)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장비는 전산화 단층 x-선 촬영기를 비롯해 150여 종이 구비돼 있으며 구급차량도 3대가 운행 중이다.

군에 따르면 대회에 대비해 보건의료원 내 정형외과를 개설하고 신규로 공중보건의사를 확보했으며 응급실 의료 인력도 보강·배치(외과 계열 전문의 4명, 간호사 8명)했다.

한편, 대회기간에는 무주태권도원에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의무센터도 마련된다. T1경기장 내 의무석에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이, 의무센터에는 간호사 1명, 그리고 경기장 외 의무부스에는 간호사 1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전주역~무주태권도원 셔틀버스 운행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는 대회에 참가하는 관람객을 위해 전주역에서 무주태권도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운영기간 : 25.~ 30. 전주역 출발 : 09:10, 09:40, 10:10 태권도원 출발 : 14:50, 16:00, 17:00)

이는 태권도원 주변의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에서 대회를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25일부터 30일까지로 매일 3회 왕복 운행하며 대회 관람을 위해서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조직위원회는 운전원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소양 직무교육을 마쳤으며 조기입국하는 선수단을 위하여 개막식 7일전부터 45인승 대형승합 55대, 25인승 중형승합 10대가 투입되어 대회참가하는 선수단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수송을 책임질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반딧불축제 지원단 회의 개최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8.26.~9.3.)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단 회의가 20일 오후 2시 무주읍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이성만 위원장과 반딧불축제지원단 주홍규 단장을 비롯한 총괄운영, 환경체험, 시설지원, 홍보지원팀장과 단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본계획서를 토대로 효율적인 축제 진행 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받은 내용들이 서로 공유됐으며 신규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위한 전략들이 논의됐다.

무주반딧불축제 사전 컨설팅은 지난 14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지역개발연구원, 건양대학교, 전주대학교, 전북도청 등 관광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의 도움을 받아 진행됐다.

주홍규 단장은 "올해는 5년 연속 정부 지정 최우수축제 명성에 걸 맞는 축제, 대한민국 대표 환경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표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개막연출과 △주민참여 길놀이 퍼레이드 확대, △대표 프로그램 강화, △반딧불이 관련 야간형 축제·글로벌 축제 지향, △남대천 섶다리 연계 프로그램 스토리 발굴, △생태축제장 공원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주사랑 쿠폰 발행, △마을로 가는 축제 확대, △반디랜드·태권도원 연계상품 개발 등 차별화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는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반딧불이 서식지를 비롯한 등나무운동장과 남대천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올해는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 Green Light 21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를 주제로 마련된다.

반딧불이 신비 탐사를 비롯해 반딧불이 국제환경심포지엄, 반딧불이 곤충교실 등이 운영되며 낙화놀이와 섶다리, 전라좌도 무주굿 등 전통놀이, 무주아리랑, 청춘마이크 공연, 홍대버스킹 정선호 기타공연, 마임퍼포먼스 Vaga & Bond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무주반딧불축제는 5년 연속 정부지정 최우수축제로 인정받고 있다. 또 한국 지방자치 브랜드 대상 축제부문 대상,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대한민국축제 콘텐츠대상 축제관광부문 대상, 코페스타 선정 대한민국 여름축제 선호도 1위, 축제닷컴 선정 가장 가보고 싶은 축제 2위, 미국 CNNgo 선정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곳 50선(남대천 섶다리)으로 연속 선정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 부영, 무주고 기숙사 증축

### '덕유관' 1개층 기숙사 10실 지어 기증키로

부영그룹은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소재 무주고등학교에 기숙사 '덕유관'을 증축·기증하기로 하고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김성철 무주고등학교 교장을 비롯하여 황정수 무주군수, 김규태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 백경태 전라북도의원,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무주고등학교는 지상 3층, 26실 규모로 104명을 수용할 수 있는 '덕유관'과 지상 3층, 6실 규모로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반딧불관' 등 2개의 기숙사 건물을 운영했으나, 1986년에 건축된 '반딧불관'이 노후돼 그 대안으로 '덕유관' 증축을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게 요청하였다. 이를 李 회장이 흔쾌히 수락하여 숙원사업이었던 기숙사 증축이 성사되었다.

이번에 증축하는 '덕유관'은 3층에서 4층으로 1개층 연면적 385㎡ 규모로 증축되며, 4인용 기숙사 10실과 샤워장, 휴게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증축이 완료되면 '반딧불관'을 이용하던 40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게 된다.

한편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지금까지 전국에 고등학교 기숙사, 마을회관 등 교육·사회복지시설 170여 곳을 무상 건립 기증했다.

그리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르완다 등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국가에 초등학교 600여 곳과 디지털피아노 6만여대, 교육용 칠판 60만 여개를 기증했다. 특히 우리나라 '졸업식 노래'가 담긴 디지털피아노를 보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졸업식 문화를 소개하고 현지에서 한국의 졸업식을 개최하는 등 한류 문화전도사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에 태권도 훈련센터 건립 비용 및 태권도 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세계태권도연맹에 글로벌 스폰서로서 1000만불을 지원했다.

현재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총재를 직접 맡아 태권도의 발전과 세계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운일암반일암, 26일~8월 15일 개장

올 여름은 예년보다 이른 더위로 여름철 피서 활동이 빨라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진안군 주천면에 위치한 운일암반일암이 오는 26일 개장해 8월 15일까지 피서객을 맞는다.

진안·무주 지질공원의 지질명소이기도한 운일암반일암은 금남정맥의 지붕으로 불리는 운장산(해발1,126m) 자락에 위치한 약 5㎞에 이르는 계곡으로 구름만이 오가고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반나절밖에 되지 않는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

또한 약 9,000만 년 전 화산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계곡으로 대불바위와 같은 거대한 바위들이 신비로운 장관을 연출한다.

진안군은 올 여름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경찰서, 119구조대, 보건소, 진안교육지원청 등 합동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음수대 및 화장실 점검과 인명구조장치 및 자동경보장치를 정비해 피서객들이 편안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 장수 신원·사치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장수군 신원·사치지구 377필지(11만 1,433.1㎡),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된 경계결과 통지로 오는 7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가 없을 시 경계를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

군은 2016년 4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016년 6월~11월까지 측량대행자를 선정하여 일필지 조사 및 측량을 실시, 완료하였고, 2016년 12월~2017년 4월까지 지적확정조서 통보 및 의견접수, 현장사무소 운영 등 측량 결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반영하여 경계를 협의·조정해 왔다. /장수=고판호 기자

### 장수 번암면, 재해 없는 곳 만든다

번암면에서는 폭우 및 가뭄대비 재해 없는 안전한 면 만들기를 추진한다는 방침하에 '한마음 한 뜻 모아 재해 없는 면 이룩하자'라는 플래카드를 면청사에 게첨, 집중호우 및 가뭄이 집중되는 8월에서 9월 초(우기철 집중호우기간)까지 이장단 및 마을별 재해 예방 홍보, 기상특보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마을앰프 방송 등을 활용 기상상황 및 행동요령 홍보, 피해예방 예찰활동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방재단, 주민 등의 전화 제보를 통해 건축물, 축대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한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군, 홀로어르신 영양관리 나서

진안군보건소는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영양관리에 나섰다.

이번 영양관리 프로그램은 지난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운영하며, 동향면 창촌마을 등 20개 마을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 실습과 영양 식이요법 교육으로 진행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식생활 관리의 중요성과 식생활 지침, 식사와 노년기 질환의 관계, 고혈압·당뇨 식사관리, 식품위생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특히 요리학원 강사를 초빙하여 저염간장을 이용한 수육 만들기, 야채를 이용한 샐러드 및 누룩소금 만들기 등 조리실습을 선보이고 있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습관 개선은 물론 심혈관 질환 및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